

5.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문예 장르의 하나로 정착된 신화의 개념은 늘 문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신화는 그저 낭만적 열정에 따른 숭배 혹은 미혹으로 간주되는 타기(唾棄)의 대상이었다. 신화를 글 안에 가두고, 예술적인 범주로 환원시키는 신화에 대한 통념은 과연 타당한가? 아마도 신화는 그보다 더 큰 맥락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그 영향은 생각보다 강력하고 집요한 것일 터이다.

신화를 문학의 하나로 보는 장르론적 사유에서 벗어나 담론적 실천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신화는 그것과 연루된 인지와 행위를 다른 어떤 담론보다도 적극적으로 호명하는 장치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신화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으며, 이는 곧 신화가 갖는 강력한 지표성을 말해준다. 이러한 지표성으로 인해 우리는 신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화의 지표성은 신화를 개념화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개념이 확정되는 것은 그것이 의미체계 어딘가에 제자리를 잡는 것을 말한다. 확고한 의미체계로 이루어진 담론이 그것과 지표적으로 연루된 현실의 간섭을 받는다면 그러한 세계는 그 확고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신화의 개념은 그것이 갖는 지표성으로 인해 의미체계 안에서 늘 불안정한 위상을 갖는다. 그 때문에 신화는 강력한 담론이면서도 늘 해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신화의 해체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신화는 탈신화적 해체에 노출된다. 이를 뮈토스(mythos, 신화 체계)와 로고스(logos, 이성 체계)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신화에 내포된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지만, 신화는 그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위장한다. 혹은 탈신화를 통해 얻어진 합리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 맹목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신화는 늘 명사가 아닌 동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언제나 이러한 해체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수반되기에 신화는 ‘신화화’이거나 ‘신화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을 필연적으로 함의한 역설적 동사인 것이다.

다음으로, 신화는 사유의 한 형태로 문학이나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한다. 기호 작용이라 규정됨으로써 그것은 존재론적이면서 인식론적인 모든 현상에 골고루 침투한다. 신화가 없는 곳은 문화가 없는 곳이고 인간이 없는 곳이다. 한마디로 신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신화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신화는 더욱 위험하고, 잠재적이며 때로는 무의식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신화를 더욱 노출시키고, 실제화시키며,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앞서 말한 탈신화일 터인데, 그러한 사유는 우리의 문화를 맹목으로 얼룩진 부패한 모습이 아닌 활발한 모습으로 숙성된 발효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 ① 탈신화적 해체에 노출된 신화는 역동적으로 합리성을 추구한다.
- ② 기호작용인 신화를 담론적 실천으로 바라보면 신화의 개념화를 달성하기 어렵다.
- ③ 신화는 위험하고 잠재적이며 무의식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탈의식화가 필수적이다.
- ④ 신화의 지표성은 관련된 사고와 행동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므로 확고한 의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⑤ 신화는 강력한 의미를 지닌 담론이므로 문학이나 언어의 경계를 넘는 예술적 장르 안에서 파악해야만 한다.

6.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워낙 흔히 쓰이는 말이라 대부분 그 뜻을 알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다. 가령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그렇다. ‘과유불급’은 논어에 나오는 말로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라고 풀이해야 옳다. 본래 중용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고 풀이하면 모자란 것이 지나친 것보다는 낫다는 뜻이 되므로 이 말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되고 만다.

그런데도 잘못된 해석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은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 문화의 특색 탓인 듯하다. 예컨대 어느 신문에나 있는 ‘오늘의 운세’란에는 이런 문구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과유불급이니 겸손하라.”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이므로 여기에 쓰인 ‘과유불급’에는 넘침보다는 모자람이 낫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모자람보다는 넘침을 경계했던 것이 우리 문화의 특색이기는 하지만, 실은 공자의 말대로 모자람은 것이나 넘치는 것이나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든 형편과 사정에 꼭 맞는 ‘적정량’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가 ‘적정량’인지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컵라면을 맛있게 먹기 위한 물의 적정량은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적정량을 재는 계량컵이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 옛 사람들이 넘치는 것을 경계했던 것도 그런 까닭이었을 것이다. 적정량을 초과해 화를 입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모자란 선에서 만족하고 멈출 때 뒤탈이 적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우쳤을 것이다.

그러나 ‘과유불급’을 오독할 정도로 겸손을 강조한다고 해서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으로서야 조금 모자랄 때 만족하는 것이 처세의 비법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 사람의 이해가 걸려 있는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사람이 모이면 이해관계가 얽히기 마련이어서, 누군가는 더 가지려 하고 누군가는 덜 가지게 된다. 그래서 사람 사는 곳에는 반드시 정치가 필요하다. 좋은 정치란 곧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정량을 찾아주는 계량컵과 같은 것이다. 모자람은 곳은 채우고 남는 곳은 덜어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절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이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 적정량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적정량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보면, 아직도 정치는 ‘과잉’이기보다는 오히려 ‘모자라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과유불급’의 정치를 위해서 정치는 지금보다 더 ‘과’할 필요가 있다.

- ① 글의 첫머리에 널리 알려진 소재를 활용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 ②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음으로써 주제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하나의 소재를 반복해서 활용함으로써 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조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글의 말미에서 연역적 추론을 바탕으로 논증의 설득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9. 다음 글의 ㄱ~ㄴ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저 왕권에 대한 위대한 옹호자 역시 이러한 정도의 저항권은 인정하고 있다. 그가 그것에 첨부한 두 가지 제한은 (ㄱ) 진실이다. 첫째, 그는 저항은 경외감(reverence)을 동반해야 한다고 한다. 둘째, 저항은 복수나 처벌을 동반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열등한 자는 우월한 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가 제시하는 이유이다.

첫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반격을 가하지 않고서 어떻게 힘에 저항할 수 있겠는지, 또 어떻게 경외감을 갖고 공격할 수 있겠는지 하는 문제가 이해되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리라고 말이다. 타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패만으로 상대의 맹공에 저항하거나, 그렇게 맹공을 퍼붓는 상대방의 확신과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칼조차 손에 들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존경하는 자세로써 저항하려는 자는 금방 그 저항에 중지부를 찍게 될 것이며, 그러한 방어가 오로지 자신에게 더 심각한 봉변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중략) (ㄴ)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자는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자신의 수고의 대가로서 어디서든 예의바르고 정중한 곤봉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열등한 자는 우월한 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그의 두 번째 주장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다. (ㄷ) 하지만 힘에 힘으로 대항하는 것은 양쪽을 같은 입장에 놓는 전쟁 상태와 같아서 이전의 모든 경외감, 존경심, 우위의 관계를 무효화한다. 따라서 남아 있는 우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공격자에 대항하는 자가 그 공격자에 대해 갖는 우위이며, 저항하는 자가 승리할 경우 공격자를 처벌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평화를 해친 것과 또 그렇게 해서 야기된 모든 해악들에 대해서 말이다.

- ① ㄱ: 정치 현실을 심사숙고한 결과물이라는 것이
 ㄴ: 타격을 가하는 일과 경외감을 표시하는 것을
 ㄷ: 즉, 그 우월한 자가 열등한 위치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다.
- ② ㄱ: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ㄴ: 복수와 처벌을
 ㄷ: 즉, 그 열등한 자가 우월한 위치로 올라서게 될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다.
- ③ ㄱ: 절대주의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
 ㄴ: 복수와 처벌을
 ㄷ: 즉, 그 우월한 자가 우월한 자로 군림할 동안에는 그렇다는 얘기다.
- ④ ㄱ: 절대주의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
 ㄴ: 저항과 처벌을
 ㄷ: 즉, 그 우월한 자가 열등한 위치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다.
- ⑤ ㄱ: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ㄴ: 타격을 가하는 일과 경외감을 표시하는 것을
 ㄷ: 즉, 그 우월한 자가 우월한 자로 군림할 동안에는 그렇다는 얘기다.

1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정의(正義)에 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 첫 번째 관점에 따르면 정의는 우리가 다른 인간들에게 빚지고 있는 동등한 관심 혹은 공정성 의무로부터 도출된다. 이에 따르면 정의의 표준들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조직들은 이 관심 혹은 이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가치로서 존재한다. 훌륭한 질서를 갖추고 있는 주권국가를 통해 우리는 다른 동료 시민들과 정의로운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국가를 지배해야 하는 정의의 요구들을 위한 도덕적 기초는 그 범위에 있어서 보편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우리가 이 관점을 취하게 될 때 주권 국가들이 분리돼 있다는 상황은 우리에게 불행한 장애가 된다. 우리가 동등한 기회 및 공정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들의 체계가 우리 사회 안에서 확립되는 것을 바라면서도, 동일한 체계가 세계 전체에서 확립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일관적이다. 부국이 아니라 빈국에서 태어나는 우연한 사건은, 같은 나라 안에서도 부유층이 아니라 빈민층에서 태어나는 일만큼이나 사람의 운명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요소이다. 이 관점은 정당한 민주적 지배체제를 더 큰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려는 유토피아적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 두 번째 관점에 따르면 정의는 본질적으로 사회 제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德)이다. 정의가 제도의 덕이라는 생각은 정의는 정치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사회 제도들의 존재, 특히 주권국가의 존재는 정의의 가치가 적용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권국가가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은 동료 시민으로서 상호 관계를 맺게 되고, 이 관계는 정의의 내용 및 절차를 채우는 공정성과 동등성의 표준에 의해 평가받게 되어 있다.

국가의 영토와 인구는 우연적·역사적 이유들로 인해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시민들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주권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주권에 의해 작동하는 법적·사회적·경제적 제도들을 통해 서로에 대한 정의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 의무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지는 다른 그 어떤 의무, 예컨대 인간 존엄성에 관한 의무로부터 파생되는 결과가 아니다. 결국 정의는, 우리가 공유하는 제도들을 통해 우리와 강한 정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빚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는 결사적(結社的) 의무이다.

<보 기>

- ㄱ. ㉠에 따르면 정의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가치로서 개인의 덕이지만 ㉡에 따르면 정의는 정치적 가치로서 제도의 덕이다.
- ㄴ. ㉠에 따르면 인류 보편적 정의는 도덕적으로 요청되지만 ㉡에 따르면 인류 보편적 정의는 요청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ㄷ. ㉠에 따르면 정의는 주권국가를 매개로 실현되지만 ㉡에 따르면 주권국가는 정의의 가치를 존재하게 하는 토대이다.
- ㄹ. ㉠은 유토피아적 정의관으로서 민주주의 이념을 지향하지만 ㉡은 현실적 정의관으로서 연고주의 가치관을 지향한다.
- ㅁ. ㉠에 따르면 일관성의 태도는 정의의 의무의 범위를 항상 확장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에 따르면 정의의 의무의 범위와 결사 관계의 범위는 항상 동일하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ㄴ, ㅁ ⑤ ㄷ, ㅁ

11. 다음 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세기 후반, 오늘날 ㉠ 철학과 ㉡ 과학의 ‘결별’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결별을 먼저 요구한 쪽은 ‘과학’을 옹호하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경험적 관찰로부터의 귀납에 기초한 이론화이며, 이 관찰들은 다른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만 그 관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형이상학적 연역은 유추일 뿐이며 그 어떤 진리의 가치도 담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철학자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하였다.

근대적 의미의 대학이 탄생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며, 이것은 결별의 결과였다. 근대의 대학은 중세 대학의 골간 위에 세워지긴 하였지만 실제로는 중세의 대학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근대의 대학은 봉급을 받는 전업교수들을 두었다. 교수들은 대부분 성직자가 아니었으며, 단순한 교수진이 아니라 학과나 학과장 아래 소속되어 있었고, 각 학과는 자신들이 특수한 전공학문을 다룬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서 편성한 학습을 이수함으로써 학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중세대학의 교수진은 신학·의학·법학·철학 등 네 부류로 구성되어 있었다. 19세기가 되면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철학 교수진이 두 개 이상의 교수진으로 나뉘게 되었던 것이다. 한쪽 교수진은 과학 분야를 담당하고, 또 한쪽은 인문학을 담당하였다. 후자는 예술, 문학 등으로 불리거나 옛 이름인 철학을 교수하기도 하였다. 대학은 나중에 스노(C. P. Snow)가 ‘두 개의 문화’라고 부른 것에 따라 제도화되었는데, 이 두 개의 문화는 전쟁상태였다. 양쪽 다 자신만이 지식을 획득하는 유일한 길 혹은 적어도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과학 쪽에서는 경험적인 연구와 가설의 검증을 강조하였고, 인문학 쪽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강조하였다.

과학은 인문학이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였다. 지식이 통합되어 있던 지난 시기에는 진·선·미에 대한 추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선이나 미의 추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오로지 진리만 추구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선과 미에 대한 추구는 철학자들에게 넘겨버린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철학자들이 이 분업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지식은 두 개의 문화로 분리되었으며, 이는 진리의 추구와 선과 미의 추구 사이에 높은 장벽이 가로놓이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자는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요구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 ① ㉠과 ㉡의 결별을 요구한 쪽은 ㉡이다.
- ② ㉠을 연구하는 다수는 ㉠과 ㉡의 분업에 동의하였다.
- ③ ㉠과 ㉡의 결별의 결과로 근대적 의미의 대학이 탄생하였다.
- ④ ㉡은 ㉠이 추구한 방식이 진리의 추구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하였다.
- ⑤ ㉠과 ㉡ 사이의 높은 장벽이 ‘가치중립성’이라는 ㉠의 요구를 정당화시켜주었다.

12.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부족사회(tribe society)에서 지도자의 지위에 대한 승계 문제는 매우 손쉽게 해결된다. 그곳에는 적어도 권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수된다는 의미에서의 승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도자의 사망과 더불어 그의 권력도 사라진다. 지도자가 되려면 그 어떤 자도 처음부터 다시 권력 기반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지도자의 지위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국한된다. 가족을 넘어서는 범위의 권력이란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내려진 결정들을 중재하는데 국한되며, 지도력이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개인적 능력 또는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원시농경이나 목축을 하는 부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이곳에서는 권력 추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정치게임의 규칙이 좀 더 명확할 따름이다.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諸島)의 시우아이(Siuai)족의 경우 야심만만한 대인(big man)은 다른 가족들과 동맹을 맺고 또한 뚜렷이 눈에 보이는 지위의 상징을 획득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의 부인을 얻어야만 한다. 또한 돼지를 많이 확보하여야 하며 돼지들에게 먹일 타로(taro)를 심어야 하는데, 이는 추종자들을 확보하고 경쟁자들을 모욕하기 위한 경쟁적인 잔치를 벌이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매력 때문이건, 선심을 써서건, 전쟁의 승리 덕택이건 간에 만일 수백 명의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커다란 ‘그들만의 공간’을 지을 수 있다면 그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 지위를 노리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계속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눈덩이처럼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권력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또한 나아가 더욱 많은 추종자와 영광을 불러오게 될 잔치에 더욱 더 많은 수의 돼지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인 중 상당수는 준(準)재분배 경제와 전쟁수행 능력을 완비한 상당한 규모의 권력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충성은 오직 개인에게 맞추어져 있다. 그가 속한 가족이나 친족집단은 그의 행동을 통하여 아무런 영속적인 우월성도 확보하지 못하므로 그의 사망과 함께 전체 정치구조는 붕괴하고 충성의 대상도 다른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권력야심가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중앙집권화된 체계와 중앙집권화되지 않은 체계와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이다. 중앙집권화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정치적 지도자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거나 또는 전임자의 권력기반 위에 자신의 권력을 구축할 수 없다.

- ① 부족사회의 정치구조는 중앙집권화되지 않은 체계이다.
- ② 부족사회에서 지도자의 지위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 ③ 부족사회에서 지위 경쟁의 궁극적 목적은 권력보다 명예와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다.
- ④ 시우아이족 내에서 여성은 지위 경쟁을 통해 권력자가 되기 어렵다.
- ⑤ 시우아이족 내에서의 지위 경쟁은 추종자를 많이 얻고 동맹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19~20)

(가)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그 자체로 헌법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 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한 고소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 법률조항이 고소권을 제한하고 있는 분야는 피해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비속의 고소권제한규범은 특정한 윤리적 내지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입법자가 재량을 가질 수 있는 형성영역 내에 있다고 볼 여지가 높아진다.

이 법률조항이 대상으로 삼는 직계존속은, 혈연과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1차적인 관계로서, 합리성으로 대변되는 이해관계나 수지타산의 논리보다는 이해와 사랑 및 헌신이라는 질적으로 다른 가치로 유지되고 형성되는 집단이며, 이 영역에서는 법률의 역할보다 사회에 대한 버팀목으로서의 전통적 윤리의 역할이 더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은 불가피하게 도덕과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특히 우리 법의식의 근저에는 근대 서구에서 비롯한 개인주의적 윤리뿐만 아니라 공동체 및 혈연 중심의 유교적 윤리가 혼재되어 있는 형편이다. 직계존속은 비속에 대하여 정신적·육체적인 양육과 보호에 정성을 기울이고, 비속은 직계존속에 대하여 가족으로서의 책임분담과 존경과 보은의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존·비속 관계의 규율에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윤리와 더불어 그 나라와 사회가 선택하고 축적해 온 고유한 문화전통과 윤리의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여 이를 체화시켜 왔고, 그 결과 근대 서구의식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있다. 친족관계 내부에서는 자율적인 도덕의 구현이 강조되어 법적 규율보다 유교적 규범이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작용해왔고, 특히 부모에 대한 존경은 어느 것보다 비길 수 없는 최고의 도덕적 선으로 간주되어 왔으므로, 우리사회의 존·비속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효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편으로 다른 친족들이 해당 존속을 고소하는 길은 여전히 열려있으므로, 범죄를 저지른 존속이 완전히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나) 이 법률조항은 가족제도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긍정된다. 국가가 문화나 윤리의 보호를 입법의 목적으로 삼을 때, 이를 물질·제도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법률조항은 전통윤리의 고양을 위해 자기의 피해에 대한 고소권을 박탈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기에 차별의 목적과 정도의 비례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한다.

존·비속이라는 신분관계는 범죄의 죄질과 책임의 측면에서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신분관계가 국가 형벌권의 행사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소송조건 내지 수사의 단서로서 기능하고, 고소권자에게는 여러 가지 절차적 보장이 뒤따른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인 가정의 기본질서 유지를 넘어 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존속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포기하고, 범죄 피해자인 비속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어 차별의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존속에 대한 고소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것만으로 정식기소와 재판으로 곧 이어지는 않는다. 사건의 발생경위나 존·비속 간 관계의 특수성, 존속의 악성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고소각하 내지 불기소에서부터 기소유예, 약식기소까지 정식기소 이전 단계의 다양한 처분이 있어 개별적 사건의 실체에 맞게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존속이라는 이유로 정식기소 이전 단계의 다양한 처분의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은 채 개별사안에 따른 특수성을 불문하고 고소를 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것만이 존·비속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형사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가족제도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하고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19.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헌법과 법률의 구분을 인정한다.
- ② (가)는 (나)에 비하여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더 폭넓게 인정한다.
- ③ (가)는 피해자의 고소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지 않는 데 반해 (나)는 피해자의 고소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본다.
- ④ (가)는 비속의 고소권제한을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는 반면에 (나)는 비속의 고소권제한이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고 본다.
- ⑤ (가)는 비속의 고소권제한이 수단의 적정성을 갖지 못하는 데 반해 (나)는 비속의 고소권제한이 수단의 적정성을 갖는다고 본다.

20.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법규범과 윤리규범은 구분된다.
- ② 모든 권리는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 ③ 윤리가 입법목적의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④ 고소권은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⑤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것은 윤리규범에 반한다.

하고 또 그 밖에는 달리 생각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23. 다음 보도 기사 표제어와 본문 간의 논리적 오류로 적절한 것을 <보기1>에서 고르고, 이와 동일한 오류를 범한 것을 <보기2>에서 모두 고르면?

구자철, 한일전 당시 박주영에게 “야! xx야!”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활약 중인 구자철(23세)이 2012 런던 올림픽 한일전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구자철은 전반 37분, 일본 수비수 4명을 제치고 선취골을 넣은 박주영이 특유의 기도 세리머니를 하자, “주영이 형이 지금껏 골을 넣었던 것 중 가장 심하게 손을 흔들었다. 너무 좋아서 손을 흔드는 걸 보는데 그게 짜릿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역시 슬라이딩을 하면서 (세리머니하는 박주영과) 함께 있었는데, 그곳에서 모든 선수들이 똑같은 얘기만 했다.”며 “욕을 했다. ‘야! 이씨! 야, 박주영! 열여덟! 야, 이 XX야! 열여덟’ 막 이런 식이었다. 진짜 너무 기뻐다.”며 당시 흥분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하락)

— < 보 기 1 > —

(가) 하나를 보고 그 전체를 판단하는 것으로, 일부 제한된 경우를 가지고 모두가 다 그런 속성을 가진 것으로 주장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

(나) 문장의 한 부분을 불필요하게 강조함으로써 사실을 왜곡되게 판단하게 하는 ‘강조의 오류’를 범했다.

(다) 문제가 되고 있는 논점을 벗어나 관련 없는 것을 주장하는 ‘논점 이탈의 오류’를 범했다.

— < 보 기 2 > —

(1) **보도 기사 표제어**: 살 빠려면 적어도 “밤 10시 이후 7시간 이상 자라.”
댓글: 전 7시간 넘게 낮잠 자는데 왜 살이 안 빠져요?

(2) **보도 기사 표제어**: 지난 주말 장성들 대거 골프 ... 대통령 “다신 이런 일 없도록”
댓글: 다음부터 주중에 쳐라.

(3) **보도 기사**: 일본 후쿠오카 현에 살고 있는 올해 112세의 주간지 유키치 씨가 세계 최고령 남성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주간지 씨는 의식이 분명하고 말하는 데에도 전혀 지장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육류를 즐기는 편이며 우유는 거의 매일 마시고 있다.
댓글: 현재 최장수인 사람은 채식주의자이다. 채식주의가 최장수의 비결임에 틀림없다.

(4) **보도 기사**: 폭염과 태풍, 일조량 부족까지 겹치면서 애호박, 오이 등 서민들이 쉽게 접하는 채소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댓글: 보릿고개 시절이 다시 오려나?

(5) **보도 기사**: 여성가족부가 지난 11일 예고한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 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 계획안’을 보면, 경쟁심을 유발하는 특성을 가진 게임은 ‘불건전한 게임’으로 간주된다.
댓글: 공기관이 멍텅구리네. 경쟁심이 얼마나 좋은 건데, 선의의 경쟁심 교육을 강화할 생각은 않고...

(6) **보도 기사**: 최지환 교사는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의 할머니가 “손자 생일이니 반 친구들에게 나눠 달라.”며 가져온 초코파이 13개와 꿀 26개를 학생 13명에게 나눠줬다. 이에 대해 교장은 “학부형들이 주는 것을 받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며 “교장 말을 우습게 아느냐.”고 험한 말을 했다. 수원시 교육청은 이를 ‘불법 기부금품’으로 보고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해당 교사를 경고 조치했다.
댓글: 할머니가 손자 생일에 그 정도 작은 성의를 보이는 것이 뭐 그리 대수라 싶지만, 그마저 못하는 아이를 생각하면 공의(公義)를 위해 금하는 것이 좋으며, 교장이 감정적인 표현까지 한 것은 지나친 처사다.

	보기1	보기2
①	(가)	(1), (5)
②	(가)	(3), (5)
③	(나)	(1), (2)
④	(나)	(2), (3)
⑤	(다)	(4), (6)

24. 다음 글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어느 대학교에서 어떤 인문대 교수가 학교 전체 연구업적에서 1등을 했다는 사실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고무적이다. 하지만 그 내막을 알고 나면 이내 실망하게 된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논문의 대부분이 영향력이 약한 학술지에 게재되었기 때문이다.

— < 보 기 > —

ㄱ. 어떤 인문대 교수는 학교 전체 연구업적에서 1등이다.
 ㄴ. 연구업적이 많은 어떤 인문대 교수는 학교 전체 연구업적에서 1등이 아니다.
 ㄷ. 연구업적이 많은 인문대 교수들 가운데에는 학교 전체 연구업적에서 1등도 있다.
 ㄹ. 영향력이 강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교수들은 모두 학교 전체 연구업적 1등을 하지 못한다.
 ㅁ. 연구업적이 많은 어떤 인문대 교수는 대체로 학교 전체 연구업적에서 1등을 한다.
 ㅂ. 학교 전체 연구업적에서 1등을 한 인문대 교수가 모두 영향력이 약한 논문을 쓴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ㄹ, ㅁ
- ⑤ ㅁ, ㅂ

25. (가)~(다)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화기 시대 ‘사회’의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은 것은?

(가) 애국계몽운동기의 대표적인 언론매체였던 「대한매일신보」의 경우는 「만세보」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만세보」가 논설 형태의 글을 통해 의식적이고 이론적으로 사회 개념을 소개하는 방식과는 달리 「대한매일신보」에서는 기사 형태의 글 속에서 부분적으로 이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물론 ‘국가’나 ‘정치’에 관련된 기사에 비하면, ‘사회’ 개념은 아직은 훨씬 빈약하다. 이는 「대한매일신보」의 필진이 일본유학의 배경보다 전통적인 유학교육을 바탕으로 근대적인 문물을 수용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또한 반식민지화의 급박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회’라는 어휘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결국 조선의 독립과 자강이라는 정치적 문제와 연결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조선사회는 계몽과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다른 한편 국가의 존폐가 걸린 마당에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형성과 대중의 계몽만을 앞세울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한매일신보」에서 사용되는 ‘사회’의 개념은 당시의 자강론자들이 ‘독립’과 ‘자강’ 사이를 연결 지은 바로 그 논리 위에 위치한다. 따라서 사회는 국가와 무관하게 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성립기반으로 이해된다. 개인과 국가를 직접 매개하여 ‘국민’ 범주를 강조하던 이전의 논리와는 달리 이제 사회는 개인의 집합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기반을 이루는 중간항으로 등장한다.

(나) 사회 개념의 용례는 일종의 신분, 계층 등의 하위범주를 의미하는 경우로 사용된다. ‘사회’란 정치나 경제와는 구별되는 하나의 차원, 하나의 영역으로서 ‘관’에 대비되는 ‘민’, 지배층에 대비되는 피지배층의 개념을 의미하는 경우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영역과 구분되는 사적 영역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더 좁게 정부의 관료기구와 민간단체들을 대비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또 ‘상등/하등’ 또는 ‘상류/중류’ 사회라는 구별과 마찬가지로 ‘사회’라는 개념은 하위 계층적 범주를 가리키는 데 쓰이기도 했다. 여기서 ‘학생사회’나 ‘문명국부인사회’와 같은 표현까지 생겨나게 된다. 한편 사회에는 중축(中軸)이 있어서 이를 근간으로 통합과 질서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추계급의 재형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 바로 사회라는 개념이 한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와 그에 속한 구성원 모두를 포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회는 한국이라든지 또는 조선이라든지, 나라라고 부르는 단위와 일치하게 된다. 그리하여 ‘한국사회’를 ‘외국사회’와 대비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냥 ‘한국’이라고 부르는 상태로부터 ‘한국사회’라고 부르게 될 때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은 한국을 구성하는 인자들, 즉, 개인이나 각종 조직들이 하나의 단위로 결합·통합되어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는 것이다.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사회 개념과 함께 단체라는 말도 자주 사용했는데 이 단체 개념도 역시 소규모 집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전 사회적 통합을 뜻하는 동사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중략) 어쨌든 핵심 취지는 소규모 개별 집단의 형성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사회를 단위로 하는 총체적 결합과 단결을 이루어내는 일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보 기>

- ㄱ. 일개인(一個人)이 합하여 사회를 성(成)하고 사회가 합하여 국가를 성함(중략) 국가의 성립이 완전한 자는 사회의 명목이 다차성(多且盛)흔지라
- ㄴ. 한국 관인사회가 부패하여 인구의 다수가 로동사회의 버는 것으로 스치하고 게으르게 생활하는
- ㄷ. 국가쇠삭(國家衰削) 시에는 사회가 문져 문란하고 사회가 분쟁하면 그 손해가 국가에 지(至)하여
- ㄹ. 사회가 아니면 단체를 막성(莫成)홀지오 단체를 성(成)치 못하면 기심(其心)이 불일(不一)하며 역무소취(力無所聚)하여 (중략) 환구열방(環球列邦)에 사회심번(社會甚繁)하여
- ㅁ. 오호라 금일 한국사회여 소위 상류사회는 문약허식(文弱虛飾)에 유(流)하며 하등사회는 박지태타(薄志怠惰)하며 여자사회는 열약탕질(劣弱蕩迭)하여 기소양출(其所釀出)한 결과가 국가면목이 방금세계열등지위(方今世界劣等地位)에 타(墮)흔지라

- ① (가) : ㄱ / (나) : ㄴ, ㄷ, ㄹ / (다) : ㅁ
- ② (가) : ㄱ, ㄷ / (나) : ㄴ, ㅁ / (다) : ㄹ
- ③ (가) : ㄱ, ㄷ / (나) : ㄹ, ㅁ / (다) : ㄴ
- ④ (가) : ㄷ / (나) : ㄹ, ㅁ / (다) : ㄱ, ㄴ
- ⑤ (가) : ㄷ, ㄹ / (나) : ㄴ / (다) : ㄱ, ㅁ

26. 다음 글의 ‘텍스트의 이원대립구도에 대한 해체’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텍스트란 일관되게 엮어진 기호의 복합체로 규정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텍스트는 기호 가운데 특히 구어 혹은 문어 등의 언어로 이루어진 복합체를 뜻한다. 모든 인문과학이 그 대상으로 인간의 사유를 문제 삼는다고 할 때, 사유를 표출한 결과물인 텍스트는 인문과학의 유일한 현실적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지대하다.

텍스트의 의미는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것 같다. 그 이유는 이원대립구도에서 하나의 용어가 나머지 다른 용어에 대해 ‘특권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미는 존재와 부재의 복합체기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텍스트의 이원대립구도에 대한 해체의 목적은 존재의 용어를 문제 삼아서 부재의 용어를 되찾는 것이다. 해체의 궁극적 프로젝트는 기존의 이원대립구도를 역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대립의 관념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다. 텍스트의 이원대립구도를 해체하는 것은 중도의 목소리를 위한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해체는 하나의 텍스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복합방식을 드러내는 체계적 분석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해체를 통해 이전에는 권력관계가 없을 것 같았던 행태와 사고구조에서 권력의 작용을 밝혀낸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해체는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텍스트 내면에 흐르는 억압된 갈등에 초점을 둔다. 그럼으로써 소위 객관적 ‘진리’라고 하는 모든 단언(端言)들의 이면을 파헤치는 것이다.

—<보 기>—

- ㄱ. 이원대립구도에 담겨있는 권력관계를 드러내고 언급되지 않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다.
- ㄴ. 개념들 간의 속성과 관계를 비교하여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범주를 만들어낸다.
- ㄷ. 텍스트 또는 맥락에 흐르는 억압적 요소나 갈등에 초점을 맞춘다.
- ㄹ. 복합적 의미의 원천으로서 은유적 표현을 해석하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을 분석한다.
- ㅁ. 기존의 관습화된 가정과 사고 유형에 대해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여 더 설명력 있는 논리를 찾아낸다.
- ㅂ. 회피된 개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지배적 개념의 지위로 부각시킨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ㅂ
-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ㅂ
- ⑤ ㄴ, ㅁ, ㅂ

27. 다음 글을 읽고 유추한 것 중 잘못된 것을 고르면?

(가) 하버트 스펜서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 발표 수년 전에 인간 사회의 변화와 무생물계 및 생물계의 변화를 보편적 진화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스펜서는 콩트가 수립한 전통에 속해 있었으며 실증과학을 인간의 연구에 적용하려고 시도하였다. 그의 중심 개념은 진화 또는 진보로, 그는 이 두 개념을 동일시하였다. 스펜서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진화론적인 접근을 모든 학문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는 진화를 기본적인 것이며 그 자체가 통합하는 과정이자 원리라고 강조하였다.

(나) 자연과학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이 통제된 조건하에서의 실험이라는 형태로 확립되었는데, 계몽시대 사회철학자들은 인간의 연구에도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방식의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연구는 객관적이지 못하였다. ㉠ 18세기의 유럽인들은 자신들 이외의 다른 민족들이 열등한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이들이 유럽인과 유사한 생활양식을 배우면 이러한 격차는 극복될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유럽식 삶의 방식이 우월하다는 점은 거의 자명하다고 생각하였다.

(다) 미국 인류학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문화영역이라는 개념을 성립한 것이다. 문화영역은 통상 보에스의 동료였던 위슬러의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가 이 기본개념을 확장시키고 정교화 했기 때문이다. ㉡ 진화단계론 혹은 3시대 구분을 반대했던 위슬러와 보에스는 비교문화유물이라는 전시 기법을 거부하였다.

(라) 위슬러는 인접한 문화들 간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유사한 문화들이 나타나는 지역을 문화영역이라고 불렀다. 그는 유사성의 원인에 대하여 한정된 지역 내에서의 전파와 한 지역에 공통적인 기본적 생계조건만을 제시하였다. 그는 문화영역이라는 개념을 박물관 전시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 개념을 사용하여 인디언 문화에 대한 자신의 저서를 구성하였으며, 생계에 근거한 분류뿐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특질의 분류를 시도하게 되었다.

(마) ㉢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일부 문화인류학자들은 극단적인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을 취했는데, 이들은 ‘미개(primitive)’라는 용어가 경멸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이들은 미개 대신에 무문자(無文字, nonliterate), 즉, 문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① (가)에 따르면 하버트 스펜서에게 진화론이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대(大)이론과 같다.
- ② (나)로부터 자연과학자들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철학자 역시 인간의 본질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을 탐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문자사용이전(preliterate)’이라는 용어도 바람직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할 열등한 단계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 ④ 위슬러는 다양한 사회가 보유한 문화적 특질을 일정한 발전단계로 구분하는 입장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 ㉢은 문화적 특질의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28. 다음 글을 읽고 미국 연방의회 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르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발의권이라 한다. 미국 연방의원은 우리 국회의원과 달리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우리와 달리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 없다. 이처럼 법안제출권은 없지만 행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대통령이 속하는 정당의 의원들을 통해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장관 또는 각 독립기관의 장이 상·하원의 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입법을 촉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행정부 서한이라고 한다.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을 발의자, 주요 발의의원을 대표발의자, 나머지 발의의원을 공동발의자라 하는데 공동발의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하원에서는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을 본회의장 연단 우측 직원석에 있는 의안함에 넣으면 된다. 상원의 경우에는 의장석 옆의 직원에게 발의할 법안을 제출하거나 본회의에서 직접 법안을 상정한다. 하원에서 본회의 투표권이 없는 의원들, 즉, 서사모아·괌·미국령 버진아일랜드·북마리아나 제도의 준주선출의원(Delegate)들과 푸에르토리코의 상주대표도 법안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다.

법안이 발의되면 하원의장은 곧바로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는 법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일반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법안이 여러 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걸친 2개 이상의 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도 많다. 발의된 법안이 어느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지는 각 원의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1975년까지 법안은 한 위원회에만 회부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복수의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처럼 복수의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그 법안을 주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주관위원회라 한다. 제108대 의회(2003~2004년)에서는 규정을 개정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관위원회를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하원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관련위원회의 법안심의에 적용된다. 우리 「국회법」 제83조에도 관련위원회 회부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제13대 국회의 국회법 개정(1991년 5월 31일)에서 미국의회의 복수회부제도를 변형하여 도입한 것이다.

- ① 괌의 준주선출의원 Bordallo는 제109회 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각 주에 전자투표 도입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선거지원법」 개정안을 직접 상정하였다.
- ②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차관 이한성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여당 국회의원 조원태에게 법안의 발의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 ③ 미국 농업위원회는 「농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의결을 위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다.
- ④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승우는 연차유급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으로 법안의 작성을 완료하였으나 찬성 의원을 찾지 못하여 연내 발의는 힘든 실정이다.
- ⑤ 미국 하원의장 Boehner는 대선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수산 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의 주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을 2012년 8월 31일까지로 정하였다.

29.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오히려 반대편에서 교통이 더더진다. 사람들이 중앙분리대 너머의 사고현장을 구경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예정 시간보다 10분이나 늦어졌지만 입장료를 냈다고 생각해서 자기 앞으로 도로가 트였는데도 구경을 다 할 때까지 속도를 내지 않는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10초 동안 구경하기 위해 10분을 소비하게 된다. 그들은 10분이라는 비용을 지불하여 구경을 하는 것인데, 실제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은 10초밖에 되지 않으므로 나머지는 호기심에 들인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운전자들이 조직화된 집합체라면, 고속도로에서 10초 동안의 구경을 포기하고 10분을 절약함으로써 원래의 속도를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조직화되지 않았을 경우 그들은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나) 케이프코드에서 돌아오던 차들이 1마일 이상 거북이걸음을 하게 되었다. 어떤 차에서 매트리스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1마일 이상 서행했고, 5분이 걸려 매트리스가 있는 자리에 도착했으며, 맞은편에서 오는 통행량 때문에 기다렸다가 매트리스를 지나친 다음 속도를 되찾은 차들이 매우 많았다. 누군가 매트리스를 치우도록 선발되거나 그 대가로 보상을 받지 않는 한 그것을 누군가 치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매트리스를 지나친 사람은 그것을 치우으로써 이익을 볼 수 없고 그것을 지나친 사람이 아니면 치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 교통 헬리콥터가 있었다면, 뒤의 운전자들에게 매트리스를 지나치면서 ㉡ 10센트 동전을 던지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매트리스를 치워준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 데 대한 재산권이 부여되었을 것이며, 그에게는 투자회수율, 그의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통신수단이나 커뮤니케이션 없이 단지 같은 길을 갔다는 사실만으로 긴 행렬의 자동차들이 조직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 기>

- ㉢. 이 글은 개인은 각자의 이기적인 동기에 기초하여 행동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 ㉣. (가)에서와 같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자기에게 아무 이익이 안 되지만 남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누군가 ‘하도록’ 하는데 있고, (나)에서와 같은 문제 해결의 핵심은 타인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 ㉤. 이 글은 개개인이 경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최대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해 있다.
- ㉥. ㉡은 개인적 관심사와 집단적 관심사 사이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을 의미한다.
- ㉦. (나)에서 ㉠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익뿐만 아니라 집단 차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 ㉧. 이 글은 강제력 있는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34. 다음 글의 (가)~(마)에 들어갈 인용문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가)

양계초는 ‘중국의 구윤리 - 오륜 - 사덕’과 ‘서양의 신윤리 - 가족·사회·국가 윤리 - 공덕’을 각각 묶음으로 정렬시킨다. 실제로 ‘공덕’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공덕에 대하여」에서 시작해서 「사덕에 대하여」 직전까지 이어지는 각 장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국가사상’, ‘진취와 모험’, ‘권리’, ‘자유’, ‘자치’, ‘진보’, ‘경제’ 등 이른바 유럽의 근대 문명이었다.

이는 ‘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서 추구되어야 할 근대적 가치들이다. 그러나 망명정치가로서 중국인 개개인의 분발을 바란 양계초는 이 모든 과제들을 중국인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 혹은 ‘행동의 원리’로서 요구했다.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열망 속에서 양계초는 유학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전통이념을 ‘사덕’으로 축소했다. 유학 안에서 당시 그가 필요로 했던 ‘국가사상’이 없었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양계초에 의하면 국가사상이란 개인, 정부, 세계와의 비교에서 그 우위를 점하는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다. 당시 양계초는 공덕 가운데서도 ‘국가사상’을 근대 유럽 문명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가)에서 양계초는 공덕과 사덕에 부여했던 함의를 각각 ‘신윤리’와 ‘구윤리’에 담았다. 즉, 양계초는 윤리를 신과 구의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했다. (나)에서 양계초는 윤리와 별다른 구별 없이 ‘도덕’이라는 말도 썼다.

(나)

(나)에서의 도덕 역시 ‘문명의 도덕’, ‘야만의 도덕’, 혹은 ‘우리 사회의 도덕’처럼 다양한 형용사를 붙여 쓸 수 있는 일반명사다. 즉, 양계초는 윤리와 도덕을 둘 다 일반명사로 사용했으며 둘의 의미를 혼용하고 있었다. 당시 그의 과업은 ‘새로운’ 유럽 문명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문명을 배워 국제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개인의 도덕으로 요구했다. 개인의 노력이 국가의 생존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 했기에, 그것은 사덕이 아니라 공덕이어야 했으며 사회의 진보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변하는 것이어야 했다. (중략)

그런데 「공덕에 대하여」와 약 1년 반의 시간을 두고 이어진 「사덕에 대하여」에서는 신문명의 강점과 유학의 미덕에 대한 평가에 변화를 보인다. 그는 공덕보다 사덕이 더 근본적이라고 주장했다. 용어 사용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우선 양계초는 윤리와 도덕을 구별했다.

(다)

(다)에서와 같은 윤리와 도덕의 나뉘 쓰기라면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윤리다. 양계초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에서 통용되었던 도덕은 오래된 것이라도 ‘구도덕’이 아니다. 도덕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롭게 윤리와 도덕을 구분하는 것은 중국의 ‘도덕’을 다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중략)

이 구도덕과 신도덕은 「공덕에 대하여」에서 구윤리와 신윤리로 표현했던 것과 일치한다. 즉, ‘구’와 ‘신’은 시간적 구분이지만 실제로는 각각 중국의 전통과 유럽의 근대 문명을 의미한다. 우선 양계초는 이전에 신도덕 혹은 신윤리에 품었던 기대를 철회하고 도덕과 도덕학을 구분한다. 도덕과 도덕학은 각각 이론과 실천의 영역이다. 신도덕과 구도덕이 있는 것처럼, 신도덕학과 구도덕학이 있다. 중국의 것이더라도 그것이 실천과는 관계없이 이론에만 치중한 것이라면 양계초에게 평가받지 못한다. 양계초가 중시하는 것은 중국의 것이 아니라 (라)와 같은 결론이었다.

(라)

그런데 양계초가 중국인을 향해 호소하고 있었던 ‘덕’ 혹은 도덕이란 ‘애국심’으로 환원되는 것이었다. 양계초는 애국의 ‘덕’ 즉, 애국심만이 중국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애국이란 절대적인 것이고 순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사람들에게 도덕으로 요구한 것은 (마)와 같은 헌신이었다.

(마)

< 보 기 >

- ㄱ. 논자들은 도덕이 왜 일어나는지 아는가? 도덕이 성립하는 것은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그 사회가 문명인가 야만인가의 차이에 따라 적당한 도덕 역시 달라진다.
- ㄴ. 정말로 도덕을 실천하려 한다면 각 사회가 그 사회의 성격의 차이에 따라 각각 이어받은 것에 의거해야 한다. 조상의 업적, 먼 조상에서 내 몸에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 사회의 자양물이 될 것이다.
- ㄷ. 지금 뜻있는 선비들은 개개인이 뿔뿔이 고립되어서는 이 위험에 처한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 반드시 협동하여 움직여서, 분업이 정밀하고 단결이 공고한 단체를 조직한다면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이 단체를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은 도덕의 감정 말고 어떤 것이겠는가!
- ㄹ. 윤리는 시세에 따라 조금씩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도덕은 사해에 적용해도 들어맞고 백 세 뒤를 기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임금에게 압력을 넣는 것은 죄라거나 처를 많이 두는 것은 부덕이 아니라는 그런 윤리는 오늘날에는 적절하지 않다. 한편 충성의 덕이나 사랑의 덕은 고급과 동서를 관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윤리에 결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중국의 도덕에 결점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 ㅁ. 지금 중국의 구윤리를 서양의 신윤리와 비교해보자. 구윤리는 군신, 부자, 형제, 부부, 붕우로 분류되고 신윤리는 가족 윤리, 사회 윤리, 국가 윤리로 분류된다. 구윤리가 중시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과의 일이다. 신윤리가 중시하는 것은 개인과 단체와의 관계다.

(가) (나) (다) (라) (마)

- ①
- ②
- ③
- ④
- ⑤

37. 다음 글의 '세계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는?

“나는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콰키우틀족의 외침은 거룩한 공간에 관한 가장 깊은 의미 가운데 하나를 제시한다. 성현에 의하여 하나의 차원과 다른 차원 간의 단절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또한 서로 다른 우주적 차원이 교섭을 갖는다.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이 교섭은 때때로 우주의 축(axis mundi)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 표현되는 바 이 축은 천상과 지상을 접촉시키고 떠받치는 것이면서 그 기반은 저 밑의 세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우주적 기둥은 오로지 우주의 중심에만 놓을 수 있는데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 전체가 그것을 둘러싸고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불가분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전통적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세계의 체계라고 부를 만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련의 종교적 개념들과 우주론적 이미지들을 알게 된다. 거룩한 장소는 공간의 균질성에 단절을 가져온다. 이 단절은 하나의 우주적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출구로서 상징된다. 천상과의 교섭은 몇몇 이미지들, 이를테면 기둥, 사다리, 산, 나무, 덩굴 등등 가운데 하나에 의해 표현되는데 이들은 모두 세계의 축과 관련된다. 세계는 이 우주적인 축을 둘러싸고 펼쳐지며 따라서 이 축은 가운데에, 대지의 중앙에 위치한다. 그것은 세계의 중심이 된다.

많은 상이한 신화, 제의, 신앙들이 이 전통적인 세계의 체계에서 파생되어 나오고 있다. 여기서 그것들을 모두 언급할 수는 없다. 우리는 다양한 문명에서 추출된, 그러면서 전통사회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공간이 차지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데 특히 적절한 몇 개의 예를 살피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그런 공간이 거룩한 구역, 예배소, 도시, 세계 등등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세계의 중심의 상징을 발견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과 관련된 종교적 행위를 설명해주는 것은 이러한 상징이다.

다른 일련의 우주론적 이미지와 종교적 믿음들도 이와 동일한 상징에 의하여 설명된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거룩한 장소와 성당은 세계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사원들은 우주적 산의 모사이며, 따라서 다른 차원과의 교섭이 이루어진다.

- ① 힌두교 신화에서 주요 신들은 하늘까지 뻗어 있는 메루산 주변에 자신의 낙원을 가지고 있으며 경건한 신자들은 죽은 뒤 이 낙원에서 영혼의 재생을 기다린다.
- ② 인간은 마고에 의해 창조된 후 마고의 성에 모여 살았으나 인구가 증가하여 성이 황폐해지자 권속별로 신표를 나누어 갖고 성의 사방으로 퍼져나가 정착하게 되었다.
- ③ 코히토족은 사원을 깎아지른 듯한 해안절벽 위에 세우는데, 이 사원은 절벽인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우뚝 솟은 모습으로 표현된다.
- ④ 지구라트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건설된 건축물로 성직자는 지구라트의 일곱 계단을 올라가 그 정상에 위치하는 제단에서 신과 대화를 나눈다.
- ⑤ 바빌론은 천지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혼돈의 물을 가둔 문 위에 세워졌으며 인간은 이를 통하여 하계로 내려갈 수 있었다.

38. 다음 글의 내용 전개상 문단 배열이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논리성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 표현된 것이 현실 세계에서 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표현된 것의 전후 문맥에서 추론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표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 표현된 것의 전후 문맥에서 추론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오류의 종류는 매우 많다. 추론이란 미루어 생각하여 논하는 일을 말하는데, 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근거로 삼는 명제를 전제라고 하고 그 명제를 근거로 도출되는 판단을 결론이라 한다. 추론의 오류는 전제와 결론 사이에 정당한 타당성이 없을 때 생겨난다.

(다) '논리(論理)'란 말이나 글이 성립함을 보여주는 근거나 이치이다. 생각을 표현하는 말이나 글에서, 내용을 이치에 맞게 이끌어 가는 과정이나 원리가 논리이다. '논리성'이란 논리에 맞는 성질을 말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도 안 되는 말들도 우리 사회에 참 많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문도 많고, 옳다고 우기는 주장이 다른 편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으며 공정성과 이성을 결여한 아집도 많다. 즉, '논리성'을 갖추지 못한 말과 글이 우리 사회에 너무도 많이 떠돌고 있다.

(라) 표현된 것이 현실 세계에서 참인가 거짓인가 하는 요건을 우리는 '진리조건'이라 한다. 표현된 말이나 글이 논리성을 갖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1조건은 그것이 현실 세계에 부합하는 '참'의 조건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표현이 있을 때, 그 내용이 이치에 맞는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현실 세계에서 참인가에 대해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지금 집에 계신다."라는 문장의 참, 거짓 여부는 사실 확인에 의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출마하는 아무개가 지난 번 선거에서 돈을 그렇게 해 먹었다."라는 문장의 참, 거짓 여부는 개인적 능력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것을 참이니 거짓이니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나쁜 놈이잖아? 또 뽑아주면 안 되겠네."라고 단정해 버린다. 그러나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판단으로 발전하는 것은 명백히 추론의 오류를 범한 것이 되므로, 논리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마) 예를 들어, "너에게 모처럼 하는 부탁을 거절하다니, 넌 나를 싫어하는구나."라는 문장에는 부탁을 들어주면 자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안 들어주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들어 있다. 이것은 좋거나 싫거나 둘 중 하나로 판단해 버리려는 것으로 상당히 빈약한 근거가 된다. 이는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논리학에서는 이를 흑백논리의 오류라고 한다. 흑백논리란 모든 문제를 양극단으로만 구분하고 중립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편중된 사고방식을 말한다.

- ① (가)→(다)→(마)→(라)→(나)
- ② (다)→(가)→(나)→(마)→(라)
- ③ (다)→(가)→(라)→(나)→(마)
- ④ (가)→(다)→(라)→(마)→(나)
- ⑤ (다)→(가)→(마)→(나)→(라)

